

##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부산지부 오천영 지부장

세계 천문의 해를 맞아 첫 번째 행사는 부산에서 열렸다. 1월 1일 새해 첫 해를 맞는 해돋이 행사가 부산 해운대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국 최대인 20만 명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기자는 이 행사가 있기 며칠 전,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부산지부 오천영 지부장을 만났다.

“매년 1월 1일이면 여름 휴가철에 피서객 인파만큼 해돋이를 보기 위해 해운대와 광안리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히, 광안대교는 1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차량을 통제해 그곳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어요. 저희 학회 부산지부와 부산과학기술협의회(이하 과기협)에서 이번 행사 진행을 도울 예정입니다.”

거창이 고향인 오천영 지부장이 부산에 정착한 지는 20년이 넘었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생활을 부산에서 시작하면서부터다.

“교사를 꼭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수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졸업하고 나면 교사 외에는 적당한 직업이 없다고 해서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갔다 와서

보니 졸업 후 진로가 가장 확실한 게 교사더군요. 좀 현실적으로 변했다고 할까요. 그때부터 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천영 지부장은 학창 시절에 따분하거나 잠 깨는 방법으로 수학 문제를 풀 정도로 수학을 좋아했다고 한다. 지금은 그가 마음먹은 대로 중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은 교사라는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될 만큼 적성에 맞습니다. 진로 결정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지 직업의 하나로 교사를 택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잘 선택했다고 합니다. 잘못 선택했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신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다는 점이 다른 직업보다 큰 이점인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인지 학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분 중에는 교사 분들이 많습니다.”

학회 각 지부에서는 천문지도사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터뷰가 있었던 그날 저녁 과기협의 과학교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가 계획돼 있었다.

“과기협에서는 70여 군데의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천문 교육도 이루어지는데, 교실 수가 많다 보니 학회에서 전부 맡아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교실 선생님들을 연수시켜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처음으로 10명이 자격증을 받았고, 현재 10명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과학문화사업에 과기협의 기여가 상당히 큼니다.”

오천영 지부장이 아마추어 천문 활동을 시작한 건 1990년 무렵. 그해 1월에 창립된 우주소년단 활동을 하면서 아마추어 천문인과의 교류가 있었고, 비로소 아마추어 천문에 입문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지구과학을 전공했지만, 이론 위주였지 실제 관측은 전무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망원경 한 번 만져보지 못했으니까요.”

학창 시절에 특별히 별에 관심을 가질 만한 계기는 없었지만, 교향이 시골인 덕분에 항상 별을 보고 자랐다고 한다.

“뭘지는 몰랐지만 그냥 별을 보면 참 좋았어요. 군대 있을 때도 오리온자리에 밝은 별 3개가 나란히 있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나중에야 그게 삼태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별에 대해 무지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무 것도 모르면서도 원 없이 별을 볼 수 있었는데, 별을 조금은 알게 된 지금은 광공해로 많은 별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못내 아쉽다고 한다.

“지부장을 맡은 지 이제 만 1년이 됐네요. 지금까지 학회 차원에서 일반인을 위한 관측행사에 많은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세계 천문의 해인만큼 보다 많은 부산 시민들이 별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을 순회하면서 관측회를 열 계획입니다. 행사를 위해서는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3급 천문지도사를 120명 정도 양성할 예정입니다. 1, 2월 중에 가장 큰 과제죠.”

120명이라는 숫자가 많아 보여도 실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결코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한다.

“연수생 중에는 정말 열정적인 분들도 많습니다. 한 분은 3급 연수를 받고 나서 부산대에 가서 천문 관련 과목을 도강하기도 했어요. 교수님을 찾아가서 강의를 들으면 안 되겠냐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를 못하고 전화로 물어 오시기도 해요. 지금은 김해천문대에서 강의도 하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오천영 지부장의 바람이 있다면 부산에 천문대가 건설되는 것이다. 이는 비단 오 지부장만의 바람은 아닐 것이다.

“한 동안 천문대 건립이 논의됐었습니다. 그러다 동남권 국립과학관 건립이 예정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말았죠. 국립과학관이 천문대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천문대만의 전문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과학관도 제대로 들어서고, 천문대도 만들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별 좋아하는 지인들과 나중에 시골에 작은 천문대를 짓고 별 보며 지내자는 얘기도 했지만, 꿈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과학관이나 천문대가 생기면 그곳에서 뭔가 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학회도 좀 더 성숙한 모습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짧지 않은 시간을 지나왔지만 항상 태동기처럼 비슷한 모습을 보는 게 늘 아쉽거든요.”

별을 보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만족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오천영 지부장의 바람처럼, 세계 천문 해인 올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별을 보여주는, 진정 ‘별 불 일’ 있는 1년이 되길 기대해 본다.

